

한국동경시리콘주식회사

주 소 : 경남마산시 양덕동 973-4
(마산수출자유지역내제1공구)
종업원수 : 1,612명 (남 : 310, 여 : 1,302명)



대표이사 伊藤欣五

마산수출자유지역에 위치한 한국동경시리콘주식회사는 1972년 12월 14일에 설립되어 트랜지스터와 하이브리드 ic (hybrid ic) 등 전자부품을 주생산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근로자의 안전과 생산성은 분리될 수 없다는 경영방침을 가지고 사업장의 근로자 보건관리에 많은 힘을 기울이고 있는 사업장이다

경영주 (伊藤欣五)를 중심으로 한 한국동경시리콘 (주)의 구성원들은 기업에서 일하는 근본적인 목적자체가 보다 나은 내일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인간존중정신을 기업이념으로 삼고 그 방법으로

근로자가 쾌적한 작업환경속에서 생활토록 하며, 그러한 생활 가운데 근로자가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유지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사업장의 안전과 생산성

은 직결된다는 경영주의 경영방침으로 각종 안전시설의 개선, 작업장 환경의 개선으로 근로자가 마음놓고 일할 수 있으며 영원한 직장으로 만족을 느껴 종업원의 사기가 향상됨으로 인해 생산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고 인식함으로써 작업환경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신규입사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채용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질병을 미연에 방지하고 사업장내에 보건담당자를 배치하여 건강상담과 보건교육을 매월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에게 보건의식

을 고취시키고 적기에 정기적으로 누락자없이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전종업원이 명량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수출산업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보건관리의 역점을 작업장의 환경개선에 두고”

작업 환경 관리

동사에서는 작업장의 환경개선을 보건관리 최우선의 역점으로 두고 작업장의 위해요소를 지적하여 개선하기 위한 안전보건 패트롤을 월 1회이상 실시하고 84년 이후 670건의 각종 안전보건 위해요소를 지적 개선하였다. 특히, 그 중에서도 전근대적 식당시설을 현대식 위생시설로 개선하여 근로자 건강관리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84년 2월에는 자동절단기의 소음방지책으로 관계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3-4차에 걸친 소음측정 및 대책을 강구한 결과 자사제작한 방음카바를 설치하여 설치전에 평균 96



-98dB로 나타났던 소음측정치를 85-86dB로 줄이는 성과를 얻어 소음에서 오는 불안전 환경을 개선하였다.

건강상담과 건강진단

그리고 사업장의 작업환경개선과 아울러 근로자의 건강에도 관심을 기울여 근로자의 질병을 조기발견하고 퇴치하여 질병없는 건강한 직장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건강진단을 철저히 실시해야 한다는 생각에 매년 5월에 약 1,700여명의 전근로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건강이상자에 대해서는 치료를 하거나 휴직처리를 취하는 등의 사후조치를 함으로써 소속근로자의 건강유지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또한 건강증진을 위해 근로자들의 건강상태를 수시 청취하여 근로자 건강관리의 기초자료로 이용하며 근로자가 언제든지 건강에 이상이 발생했을시 마음을 터놓고 상담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건강관리보전담당자를 건강상담실에 상주시켜 근로자들로 하여금 항상 건강상담에 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보건담당자가 수시로 현장을 직접 순회하면서 근로자들의 건강에 관한 문제를 청취하여 상담에 임하

고 있어 근로자들의 건강체크를 위해 소홀히 하지 않고 있다.

“질병발생방지는 발생원인을 제거하고”

방역, 위생 점검

한편 사업장내에 전염병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사에서는 매년 6월-9월 하계방역중점 실시기간중에는 방역대행기관(역내 대한산업보건센터)과의 협조하에 위생취약지역을 중점으로 회사건물 내외의 방역소독을 월 1-2회씩 실시 전염병을 사전에 방하여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85년 8월부터 12월까지 집중구



서작업을 실시키로 하고 용역업체에 의뢰하여 현재 진행중에 있다.

발병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발병의 원인을 사전조사하여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회사내에서 위생상 취약지역인 식당을 중심으로 총 22개 항목에 걸친 위생점검항목에 대해 주 1회 정기적으로 계속하여 위생점검을 실시하여 84년 이후

총 50여건 정도의 불안전 위생상태를 개선하는 실적을 보이고 있다.

“경영이란 크게 자료·물자·인력의 3요소가 서로 유기적으로 작용하는 과정에서 효용의 극대화를 위해 운영되는 것으로 볼 때, 인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막대하다. 1906년 미국철강회사에서 제창한 안전제일 사상은 이것을 뒷받침하고 있다.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것은 근로자들의 사기진작을 가져와 결국 생산성향상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인간의 신체와 생명의 안전은 그 무엇에도 비교될 수 없는 고귀한 것이므로 안전한 작업환경이야말로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시키는 기본인 것이다. 또한 재해의 예방이야말로 기업경영개선의 첩경이며, 재해가 발생하는 것은 인명경시 풍조에서 나오는 부산물이라는 사고아래 도덕적 차원에서 부끄러워 해야 할 일이다.

직업병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업무야말로 기업경영의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업무이며, 그 중요성과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싶다”는 경영주의 보건관리철학 아래 근로자 보건사업을 꾸준히 실시하여 근로자 건강은 물론 국민건강증진에도 크게 도움을 주는 모범사업장으로 정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